

북한, 트럼프 당선 후 첫 대미접촉 ‘탐색전’

제네바서 비공식 대북 논의

北 외무성 국장·美 연구원 참석

“트럼프 정부 정보 얻을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 당국이 미국 전문가들과의 첫 비공식 접촉에 나섰다.

이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능케 하기 위한 탐색 차원의 접촉 시도로, 북한에서는 최섉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존 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윌트 연구원이 각각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15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양측에서 누가 더 참석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앞서 최 국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미국 전문가들과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경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 국장의 베이징공항 도착 모습을 포착



최섉희 국장



조엘 윌트 연구원

한 교도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 국장이 제네바에서 미국의 연구원들과 비공식 대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측 복수의 소식통들은 “미국에서는 조엘 윌트 등 38노스팀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앞서 최 국장이 미국국 부국장 시절이던 2012년 8월에도 싱가포르에서 접촉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부국장 및 북핵 6자회담 북한측 차석대표로 활동해 온 최 국장은 지난날 전임 미국 국장이던 한성렬 국장이 외무성 부상으로 승진한 후 후임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출신인 윌트 연구원은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무부 북핵 특사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차관보의 선임보좌관으로 일한 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을 주도하는 등 과거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했다.

북한이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것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아직 미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국장은 베이징공항에서 자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정책이 어떨지가 기본이다”라고 말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는 자세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최 국장은 이번 제네바 접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해 오랜 친구들을 만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최 국장의 이번 제네바행은 자기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maniac)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하겠다”며 대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당선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등의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과 미국은 미국 대선 이전인 지난달 21~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공식 대화를 갖고 차기 정부에서 다룰 대북 이슈를 논의했다.

당시 대화에는 북한 측에서는 한성렬 외무성 부상 및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 미국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리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 보협력프로젝트 국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만나러 뉴욕 가는 아베

오늘 미일동맹 재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미국 뉴욕에서 회담한다.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당선인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참의원 특별 위원회에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서는 경제와 무역, 안보, 미일관계, 동맹관계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미국 대선 개표 완료 다음날인 지난 10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미일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17일 뉴욕회담을 끌어냈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톰 코튼 상원의원을 만나는 등 아베 총리의 ‘트럼프 외교’ 지열에 공을 들였다.

코튼 의원은 가와이 보좌관에게 ‘미일관계 재검토’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유세 과정의 발언 하나

하나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코튼 의원은 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17일 회담이 두 사람의 신뢰 관계를 깊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기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탈 ▲미일 안보조약 불평등 ▲주일미군 주둔경비 증액 등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표명한 발언들에 대한 우려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가 미국 대선 개표 이후 신속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세계 각국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회담을 하는 일정을 잡은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지난 10일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일동맹을 평가한다”, “미일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직접 만나서 진의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아베 총리는 17일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일동맹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포스트잇 트럼프 반대 시위

제45대 대통령에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15일(현지시간) 일주일째 미국 각지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뉴욕 유니온 스캐어크 벽면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중국에 “김정은 ‘똥보 3세’로 부르지 말라” 요구

〈진산평〉

북한이 중국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똥보’로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6일 빈과일본 등에 따르면 최근 바이두(百度)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인터넷에서 김정은을 희화화한 ‘진산평’(똥보 3세)이라는 표현의 검색이

차단됐다.

현재 신랑(新浪)웨이보에서 진산평을 검색하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며 바이두와 소후(搜狐)닷컴 등에서는 ‘죄송합니다. 진산평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된다.

이 단어는 작년 10월 류원산(劉圓山) 중국 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 당시 중국 당국의 검색이 차단 조치로 한동안 검색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결정된 후 차단이 해제됐던 단어다.

빈과일본보는 중국이 또 진산평 검색을 차

단한 것은 북한 당국이 중국 측에 중국 언론뿐 아니라 국민이 김 위원장을 진산평으로 부르지 말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은 “북한이 왜 중국의 언론 자유에 간섭하느냐” 등 반발 글을 게재하거나 검색이 차단을 피하려고 ‘진산평’ 대신 ‘진사(四)평’이나 똥보를 3번 넣은 ‘진팡팡팡’, 영문으로 된 ‘골드 쓰리 팻(Gold Three Fat)’ 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연합뉴스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급매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전남 영광 전원주택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① 토 151평, 건 43평
①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함!!)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올수리 천변로 전망 좋음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온천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려있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원 (전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6층 (10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열
보증금 500만, 월 42만원 (전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명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망 좋음, 주변 골프장,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원(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파 도시형
지하 (13평) 숙명여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사무실/주거용 오피 임대

동구 수기동 사무실 임대
제일오피스텔 20층 중 6층

45평 (약 4평 저층찜질방 있음)
시설완비 / 시설비 약 4천만 등
/ 주차원비 / 즉시입주 가능

▶ 보 2천 월 60만

북구 흥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원)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원)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법률 경매 (주) 대진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 건물)
토 17평 건 250평
금남로 47, 57역 사이 1분거리
1층 (은행) 2층~3층 (사무실)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 북구 신안동 (주유소)
토 22평,건26평
임동사거리 코너 위치
주유소 2층 주택 있음
▶감정가 14억 → 최저가 9억8천



■ 서구 금호동 (1층 식당)
토 68평 건 137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 사거리 코너
식당 적격 추천 / 커피숍, 옷가게 추천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



■ 서구 금호동 (상가주택)
토 56평 건 75평
1층 (식당) 2층 (주택)
대단위 아파트 정문 / 금호초 정문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서구 쌍촌동 (토지)
농지 457평
운천역 3분 / 치평중 인근
도시지역 / 제 2층 일반 주거용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11억7천

010-6670-9800

010-7384-7800

010-7384-7800

010-6670-9800